



최경주 <완도>



위성미 <장흥>



신지애 <영광>

내년 美 그린 '전라도 태풍' 분다

<PGA·LPGA>

2009년 미국 프로골프 남녀 무대에 '전라도 태풍'이 감지되고 있다.

장흥에 뿌리를 둔 위성미(19·미국명 미셸 위)가 8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카드를 확보하고,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LPGA무대에 본격 진출하는데 이어 '완도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 정복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미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LPGA 인터내셔널골프장 챔피언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파인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공동 7위(12언더파 348타)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투어카드를 받았다.

LPGA 투어는 한 때 '천만달러 소녀'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흥행 보증수표 위성미가 그동안 추락했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맞게 됨에 따라 경제위기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LPGA 투어 흥행을 떠맡아줄 인물로 반기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위성미는 할아버지 위상규(82·서울대 명예교수·항공학 박사)씨가 낙향해 살고 있는 장흥군 부산면 기동마을을 지난 2003년 방문해 식수까지 한 적이 있다. 특히 장흥군과 장흥군 체육회는 위성미가 프로로 전향하기 전 후원금을 전달한 인연을 맺어 그가 느끼는 할아버지 고향에 대한 정은 애틋하다.

최-“메이저 대회 우승 목표”

위-풀시드권 확보 부활 기대

신-MVP·신인왕 당찬 포부

8일 투어카드를 확보하고 출가분한 표정으로 나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위성미는 “내년에는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짜서 나가고 싶은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기뻐했다. 투어 카드없어도 62차례나 LPGA 투어대회에 출전했던 그는 그러나 53개 대회는 초청선수 신분이었다고 연간 8개 대회 밖에 치를 수 없었다.

위성미의 부활과 함께 내년 LPGA의 '신인왕'과 '소렌 스타를 대신할 스타'로 꼽히고 있는 신지애(20·하이마트)는 벌써부터 LPGA 투어에서 몇 등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질 정도. 영광 출생,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2006년 KPGA 투어 데뷔 첫해 대상과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 상등 5관왕에 올랐고, 지난해엔 9승으로 시즌 최다승을 올리며 통산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올 해는 미 LPGA투어 비회원으로 최초 3승을 올렸고, 일본 투어에서 1승과 3차례 준우승을 기록했다.

국내 3개 메이저 대회 전관왕(시즌 7승)을 포함, 국내외에서 상금만 42억원을 받았다.

우승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강해 '파이널 퀸'으로 불리는 '지존' 신지애의 등장에 LPGA는 숨을 죽이고 있다.

위성미와 신지애가 LPGA를 긴장시키고 있다면 PGA에는 '완도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있다.

완도 수산고 출신의 최경주는 8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타의 게리 플레이어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네드뱅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를 차지한 후 내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균형있는 몸을 만든 것이 큰 소득”이라며 “엉덩이 뒷부분 근육에 이상이 생겨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로 내년 투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에는 쇼트 게임을 정립하고, 3년내 메이저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내년 PGA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제는 마음에 맞는 대회를 골라 출전할 수 있게된 위성미와 이미 세계무대에서 검증받은 신지애, 그리고 정상급 스타로 자리잡은 최경주. 내년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 불어닥칠 '전라도 태풍'의 눈'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든글러브 11일 발표



이대호 vs 김동주 3루수 경쟁 후끈

'황금장갑'을 품은 영예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08시즌 포지션별로 가장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10명의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11일 가려진다. 거센 세대교체의 바람이 미칠 영향과 SK와 롯데의 힘겨루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시즌 새로 도약한 선수들의 야심찬 도전으로 사상 처음으로 수상자 전편 불같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수상자 리오스(투수·전 두산)와 심정수(외야수·삼성)는 일본 진출과 부진으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석민 이용규

각각 0.309와 0.301의 타율로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다. 타점에서도 104점(2위)과 94점(3위)으로 비슷해 3루가 올 시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시리즈 2연패의 주역 SK와 프로야구 '흥행 돌풍'의 발원지 롯데는 각각 8명과 7명의 후보를 내세워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SK는 2002년 외야수 이진형(현 LG)과 지명타자 김기태(현 일본 요미우리 코치)의 동시 수상이 최고의 성적으로 2000년 창단 이후 5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2000년대 수상자 수로만 볼 때 KIA와 함께 공동 6위다. 하지만 올해는 김광현(포수), 최정수(3루수), 정근우(2루수), 나주환(유격수), 박재홍(외야수)을 전면으로 포진 시켰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상자 없이 시상이 들러리를 했던 롯데는 2005년 손민한(투수), 2006년과 2007년 1루수 2연패 이대호가 수상자 명단의 전부다. 그러나 올 시즌 3위의 성적과 함께 흥행몰이를 한 롯데는 7명의 선수를 후보에 올리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3명의 후보를 내세운 KIA는 투·타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준 '방어왕' 윤석민(2.33)과 0.312의 타율로 130개의 안타를 때려낸 외야수 이용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상 첫 전면 물갈이 가능성

SK-롯데 수상자 수 경쟁도

KIA 윤석민·이용규에 기대

포수 박경완(SK)은 규정타석 미달로 0.292의 타율로 19개의 홈런을 때려낸 강민호(롯데)에게 밀린다.

2연패를 했던 삼성 양준혁(타율 0.278)은 올 시즌 지명타자로 변신한 홍성흔(타율 0.331·롯데)에 맞서 힘겨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6번째 골든글러브에 도전하는 유격수 박진만(삼성)은 롯데 박기혁에게, 2루수 고영민(타율 0.267·두산)은 SK 정근우(타율 0.314)와 롯데 '캡틴' 조성환(타율 0.327)의 경쟁구도에 밀리고 있다.

외야에는 '타격 3관왕' 김동주(두산)와 '타점 1위(111점)' 가르시아(롯데)가 버티고 있어 지난해 수상자 이대형(외야수·LG)의 입지가 좁다. 또 2년 연속 1루수 황금장갑을 품어 안았던 이대호(롯데)가 3루로 이동하면서 2연패의 김동주(두산)에 도전장을 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나란히 5.6번을 맡았던 김동주와 이대호는

男 김학민 (대한항공)·女 데라크루즈 (GS칼텍스)

프로배구 1R '베스트 선수'



김학민

데라크루즈

프로배구 대한항공 돌풍의 선봉장 김학민(25)과 여자부 특급 외국인선수 베라니아 데라크루즈(21·GS칼텍스)가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 격인 '베스트 선수'로 뽑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연맹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위원, 경기판독위원 13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각각 11표와 9표를 받은 김학민과 데라크루즈를 1라운드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베스트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한항공의 주전 라이트로 도약한 김학민은 서브 1위(세트당 0.63개), 공격성

공률 2위(54.6%), 득점 3위(83점)에 오르며 대한항공의 1라운드 전승 행진을 이끌었다. 올 시즌 여자부 외국인선수 가운데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데라크루즈는 공격성공률(47.4%)과 서브(세트당 0.5개) 부문 1위와 득점 2위(116점)에 올라 있다.

전하장사대회 4년만에 부활 11일부터 3일간 경남 남해서

2004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전하장사가 4년만에 다시 탄생한다.

대한씨름협회 민속씨름위원회는 11일부터 사흘간 경남 남해 남해체육관에서 시즌 마지막 대회를 열고 올해 최강자를 가린다.

첫날은 백마·거상 통합장사, 12일에는 백호·청룡 통합장사 결정전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체급에 관계없이 출전하는 전하장사 결정전이 열려 대미를 장식한다. 전하장사대회는 민속씨름대회를 주관하던 한국씨름연맹이 2004년까지 열었지만 이후 프로팀들이 잇달아 해체되고 씨름협회가 별도 대회를 주최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맥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씨름협회 민속씨름위원회가 프로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흡수하고 올 시즌 다섯차례 대회를 치르며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올해 씨름을 총괄산하는 전하장사 결정전을 열게 됐다.

민속씨름위원회는 올해 성적을 바탕으로 윤정수(수원시청), 김승현(인천 연수구청), 백성욱(용인백옥살), 노진성(울산동구청), 황규연(현대삼호중공업), 김상중(마산씨름단), 장성복(동작구청), 정원식(안산시청)을 16강에 미리 올려 놓았다.

본경기에 앞서 10일 치러지는 예선전에서는 올해 전국체전 장사급에서 우승한 이재혁(현일고)이 고교생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대회 일정> 11일 오후 2시10분 백마·거상 통합장사 결정전 12일 오후 2시10분 백호·청룡 통합장사 결정전 13일 오후 2시 전하장사 결정전 *KBS 1TV 생중계. /연필뉴스

올 모래판 최강자는?

김광호·황예슬 '금'

<광주시체육회>

코리아오픈 국제 유도

김광호(국군체육부대·광주시체육회)와 황예슬(여·한국체대·광주시체육회)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광호와 황예슬은 최근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끝난 2008 KRA컵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에서 각각 남자부 90kg 이하와 여자부 70kg이하에서 금메달을 메쳤다.

김광호는 90kg이하 결승에서 일본의 사이토 슌을 발리타 후리기로 한판승을 거두



김광호

황예슬

며 우승했고, 황예슬은 여자 70kg이하 결승에서 최미영을 맞아 유효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